

“김세완의 ‘한국교회음악의 한국화 연구’에 대한 논평”

이경직 (백석대)

김세완은 이 글에서 한국교회 예배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21세기 찬송가』에서 한국화된 곡들을 찾아 분석함으로써 한국화의 기준을 찾고자 하며, 이를 통해 교회음악의 한국화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찬송가의 한국화가 이론적 차원에서뿐 아니라 창작이라는 실천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표를 염두에 둔 글로 보인다. 『통일찬송가』에 비해 한국인이 작곡한 곡이 거의 8배나 증가한 사실도 『21세기 찬송가』 연구의 한 동기로 작용한 듯하다. 김세완은 53개의 곡을 리듬과 음계, 선율, 화성이라는 음악적 기준에 따라, 그리고 작곡가의 기법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한국화 정도를 드러내고자 한다.

김세완은 6/8박자와 9/8박자와 같이 리듬이 3분할되는 겹박자가 한국음악의 리듬이 가장 잘 잘 드러나는 박자라고 여긴다. 김세완에 따르면 그런 곡은 『21세기 찬송가』의 한국화 찬송 53개 중 반 이상을 차지하며 이는 겹박자 작곡을 권유한 나운영의 영향이다. 9/8박자 곡은 6/8박자 곡에 비해 부르기 어렵다. 21개 곡은 회중이 박자를 쉽게 셀 수 있는 3/4박자 곡이며 한국 전통음악의 리듬을 서양음악의 형식으로 나타낼 때는 부점과 셋잇단음표가 사용된다.

김세완에 따르면 5음 음계의 곡들과 경과음이 있는 5음 음계의 곡들이 한국적 음악의 분위기를 가장 잘 나타낸다. 한국적 냄새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는 7음 음계의 곡들에서는 리듬이나 선율, 음정이 한국적 냄새를 내는데 기여한다. 김세완은 5음 음계의 곡들 중에서 평조 선율을 택한 곡이 19개나 되고 계면조 선율을 택한 곳은 5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김세완에 따르면 경과음이 있는 5음 음계의 곡들 중에서 평조 선율의 곡은 4개이며, 계면조 선율의 곡은 2개이다. 결국 평조 선율이 한국적 냄새를 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정과 화성과 관련하여 김세완은 한국화된 곡들을 (1) 전통음악의 음정이 주축을 이룬 곡과, (2) 서양음악의 음정과 화성이 주축을 이룬 곡, (3) 한국적 화성을 지닌 곡으로 나눈다. 김세완에 따르면 (1)은 29개이고 (2)는 14개이다. 한국 전통음악에서 볼 수 있는 음정이 (1)에서 많이 발견된다. 부3화음과 부속화음이 사용됨으로써 서양음악의 주요 3화음을 약화시키며 그 결과 음악에 동양적 색채를 입힌다.

김세완은 『21세기 찬송가』의 한국화된 곡을 작곡가의 기법에 따라서도 분석한다. 그녀에 따르면 문성모가 『21세기 찬송가』에서 한국화된 곡을 가장 많이 작곡한 사람이다. 그러나 한국적 화성을 계발한 사람은 153장만 작곡한 나운영이다. 나운영은 한국 전통음악의 기법을 시대에 맞게 현대화했다. 3음이 생략된 5도 병행의 화음이나 부가화음을 사용함으로써 서양음악의 화성감을 약화시킴으로써이다. 나운영이 찬송가의 한국화에 기여한 공로가 큼에도 불구하고 찬송가에서 수록된 곡이 적은 이유는 그의 음악의 실험적 경향 때문이다. 301장과 592장을 작곡한 박재훈은 한국교회가 서양음악 기

법에 체질화되어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한국 전통음악의 기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는 서양음악의 기법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한국적 정서를 나타내기 위해 부점과 셋잇단음표를 많이 사용한다.

이에 비해 문성모는 한국 전통음악의 기법을 특히 리듬과 관련하여 많이 사용하면서도 회중이 잘 부를 수 있는 곡들을 작곡했다. 김세완은 이 점이 앞으로 한국교회 음악의 한국화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여긴다. 문성모는 5음 음계를 충실히 사용하고 선율 중심의 작곡을 했다. 이문승은 문성모만큼은 한국전통음악의 기법을 강하게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서양음악의 기법을 한국적으로 용해하며 가사까지도 한국화하려 한다는 점에서 독특성을 지닌다. 김세완에 따르면 한국전통음악의 기법을 가장 적게 사용한 이유선의 찬송가가 한국 성도들의 애창곡이 된 현실은 한국 성도의 음악적 심성이 거의 서양음악 쪽에 놓여 있음을 잘 보여준다.

김세완은 연구대상이 되는 곡들의 한국화 지수를 매기고 그 곡들을 세 부류로 나눈 다음 한국화 기법을 사용하는 창작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김세완은 세 부류의 장단점을 살펴봄으로써 창작의 한국화 추구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러 기준들 중 리듬과 음계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김세완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 ① (9점에서 7점까지 해당됨.) 한국 전통음악>서양음악
- ② (6점에서 5점까지 해당됨.) 한국 전통음악=서양음악
- ③ (4점에서 3점까지 해당됨.) 한국 전통음악<서양음악

① 부류에 속한 곡들은 반복이 많아 리듬의 다양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으며, 성도들에게 아직 이질감을 주기 때문에 성도들이 미리 익혀야 할 필요성이 있다. ① 부류에 속한 곡들은 선율에 큰 변화를 주기 어려운 5음 음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회중에게 지루함을 줄 수도 있고 표절 가능성을 피하다가 독창성을 잃어버리기 쉽다. 이와 관련하여 김세완은 7음 음계 사용을 추천한다. ① 부류에 속한 곡들은 안정된 박자와 흥이 있기에 노인층에게 호응이 있고 교회 밖에서도 잘 사용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② 부류에 속한 곡들은 서양음악 기법과 한국전통음악 기법이 적절히 섞여 있기에 한국 성도들의 애창곡이 되었다. 김세완은 이 현상이 현재 한국성도들의 음악적 심성의 현주소를 잘 보여준다고 여기며, 미래 교회음악의 창작도 이 현주소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 부류에 속한 곡들은 서양음악을 한국전통음악의 기법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창의성과 예술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요소 때문에 회중이 따라 부르기 어렵다는 단점을 지닌다. 이와 관련하여 김세완은 이런 부류의 곡들에 회중성을 더하는 것이 미래 창작의 방향이라고 주장한다.

김세완은 한국화 지수를 작곡가에 따라 분석하기도 한다. 리듬과 선율, 음정에서 한국화를 시도했던 나운영의 곡 153장은 한국화 지수가 낮다. 서양음악의 기법과 절충하려 했던 박재훈은 선율과 음정에 한국적 기법을 넣으면서도 나운영에 비해 실용성을 추구했다. 문성모의 곡들은 한국 전통음악의 기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그는 회중성을 강조한다. 이문승은 한국 전통음악의 기법을 문성모보다 적게 사용하지만 이유선보다는 더 사용한다. 이유선이 한국적 분위기로 작곡한 곡 323장과 597장이 널리 애창되었으나 정작 그는 교회 음악에서 한국화보다는 예전적 접근을 더 강조했다.

김세완의 연구는 한국 교회음악의 한국화와 관련된 이론적 작업이다. 김세완에 따르면 한국화된 찬송가 창작은 낯선 한국전통음악기법을 도입하려는 경향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김세완은 서양음악적 심성에 머물러 있는 한국교인들의 실정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경향이 성도들에게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고 여긴다. 김세완의 관심은 한국 성도들이 애창할 수 있는 한국적 교회음악에 있다. 또한 김세완은 한국화된 찬양곡들을 세 부류로 나누고 각 부류의 곡들의 사용이 교회의 상황에 따라 정해질 수 있다고 제안한다. 김세완에 따르면 한국전통음악의 기법이 두드러지는 ① 부류의 곡들은 해외선교나 노년층 성도들을 위해서나 절기 찬송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부류와 ③ 부류의 곡들은 공 예배 때 사용될 수 있으며 한국성도들이 그 부류들의 곡들에 익숙해질 때 비로소 ① 부류의 곡들에 대해서도 친근성을 느끼기 시작할 수 있다.

김세완의 연구는 한국 교회음악의 한국화라는 주제를 교회음악과 예배학 분야의 담론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음악적 분석과 작곡가별 분석을 통해 한국적인 교회음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이 분야에 대한 추가 연구가 기대된다.